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추석 상에 오를 우리 그릇의 가치와 美



권오신
칼럼니스트, 대중회 문헌편찬위원장

청태건 한옥과 우리 그릇엔 이야기가 스며있다.

여름엔 백자, 겨울엔 유기 반상기를 쓰니 고유한 음식들이 내뿜는 이미지 표현도 최상이다. 그렇지만 아파트와 친숙해진 현대인들의 손에는 플라스틱 그릇들이 쓰기가 더 편했던 것 같다. 6~70년대를 품미했던 스테인리스 그릇이 물러난 자리에 플라스틱 그릇이 점령하고 있지만 우리 그릇만이 갖는 그 가치와 미적 고유 세계만은 결코 침범할 수 없다.

막걸리 비빔밥 등 한식의 세계화 바람을 타고 우리 그릇의 가치와 미학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반찬은 조금 크고 굽이 있는 그릇에 담으면 더 돋보이고 단조로운 상이 화려하게 꾸며진다. 상차림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그릇은 시각적인 효과를 끌어올려 미각을 한껏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7,8세기 경주 황남대총에서 쏟아져 나온 신라 그릇들을 보면 다양하고 예쁘고 실용적이었다. 삼국시대부터 왕족과 귀족층에선 금기, 은기, 철기를 사용했던 반면 서민들은 토기나 목기를 주로 썼던 것 같다. 토기의 경우 가야 시대 것은 대를 높혀 멋을 한 것 냈다. 4,5세기를 건너는 원삼국시대라 해서 정갈스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리 형태가 작은 당대의 멋이 가장 잘 표현됐다.

추석 설 명절 차례 상차림 그릇들은 더 독특하다.

돌아가신 조상들일지라도 수저가 쉽게 가는 12첩 이상 상차림으로 정성을 다한다. 계절 따라 표현되는 우리 그릇은 정갈하면 서도 다채로워서 한식의 세계화에도 한 몫을 한다.

우리 그릇은 유교가 꽃피웠던 조선시대에 들어 예법에 맞춘 상차림으로 인해 더 다양해지고 품격이 갖추어진다. 상위에 예를 갖추는 반상기가 이때부터 등장한 것. 그 종류도 다양해서 3첩부터 12첩 이상이다.

12첩은 임금님과 중전을 위한 수라상 차림이다. 반상기는 유기(甝그릇)와 도자기(청자·백자, 분청 등), 목기로 나누지만 유기 그릇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 한식의 고유성을 표현하는데 최고의 그릇이다. 유기(甞)그릇은 좀 무겁긴 해도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안정적이고 음식의 변질을 막는 특별한 힘이 담겼다.

우리 그릇은 특히 용도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밥, 국그릇, 뚝배기는 기본이고 찌개를 담는 조치보, 김치를 담으면 보아, 반찬을 담는 쟁점, 양념을 담으면 종지여서 음식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붙여진 이름은 한식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또 잔치상에 오르는 술병은 술맛을 돋우기 위해 모란꽃과 심장생 등 갖가지 문양을 그려 넣었다. 우리 그릇은 계절성을 부각시켜 여름에는 시원스럽게 보이는 백자를, 겨울엔 보온성이 뛰어난 유기 반상기를 쓴다.

청자는 우리 그릇의 신비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해 주었는가 하면 분청사기 그릇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찾는 웰빙 코드와 잘 맞는다. 우리 음식은 프랑스 요리같이 외모의 화려함보다는 건강과 정성이다. 우리 음식은 바로 건강을 지탱해 주는 약이자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한 가지 흡이라면 가지 수가 많은 것인데 이 흙은 반상기로 바로 잡을 수 있다.

프랑스 음식이 화려한 점心和 투명한 와인잔, 반짝거리는 포크·스푼 등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다양스런 우리 그릇을 진화시켜 한식의 세계화를 도우면 더 빛날 것 같다.

외국인을 초청했다면 단촐하지만 뚜껑 있는 반상기를 쓰는 것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귀하게 보이는 점도 있다. 뚜껑은 편한 것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귀찮게 여겨질 수는 있으나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흥미롭게 보이는 점을 살리는 것.

백자의 투명함과 손 물레가 빚어낸 도자의 자연미가 돋보이려면 한옥이 제격이지만 상차림만 잘하면 아파트 공간도 한옥처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얼마든지 머리만 쓰면 분위기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릇이 갖고 있는 미적 장점이기도 하다.

사발 입은 먼 산을 옮겨온 듯 굴곡을 줌으로써 입술에 짝 달라붙는다. 그릇 입구가 휘어지게 해서 손에 잡는 맛을 느끼게 했고 넘 벌어진다면 헤프다 해서 오목하게, 그릇 높이는 삼등분해서 반접 높이까지 맞추었다. 사발은 생과 사의 이치와 같다. 오른쪽 정상적 위치에 두면 생명을 지탱시키는 그릇이지만 왼쪽에 얹어두면 죽음을 가리키는 불분이다.

찾잔의 이치는 더 독특하다. 찾잔의 가운데 자리는 태극이 물결 넘치는 형태를 따왔다. 찾잔에 담긴 생명의 물이 태극이 갖는 음양의 이치처럼 휘돌아 나간 가운데 자리엔 차 찌거기가 고이도록 했다. 찾잔은 다인(茶人)들의 손에 노는 명기다. 다인(茶人)들의 섬세함과 마주치지 않도록 그릇 겉은 거칠게 빚은 것도 우리 그릇만이 배려다.

오는 25일은 추석이다. 올 추석은 우리 그릇의 미, 가치를 한껏 살리는 상차림으로 고유 전통미를 세계에 내놓기를 권유하고 싶다.



8세기 통일신라 굽이 높은 반찬그릇

파조 표준영정 이야기 ① 부정공파 파조 권통의(權通義)

권오철(부정공파 35세)

부정공파의 뿌리, 파조 권통의의 역사적 실체



파보에 실린 영정과 이를 기준으로 시를 통한 복식 고증 등으로 새롭게 작성한 영정 (AI 작성 권오철)

안동권씨 15개 파 가운데 인구 규모로 손꼽히는 거대 문종인 부정공파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흐름 속에서 탄탄한 족적을 남겨온 유서 깊은 가문이다. 이 부정공파의 뿌리이자 시작

점이 되는 파조 권통의의 표준영정과 역사적 실체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움직임은, 과거 막연히 전해져 내려오던 조상의 초상을 AI 시대의 날카로운 역사적 고증을 통해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고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추후 비록 사실은 알 수 없어도 파조의 표준영정을 나름 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였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기획한 '부정공파 사록'의 집필을 시작하면서 우선 작성하여 본 것이다,

20년 만에 제기된 표준영정의 고증 필요성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제작된 기존 부정공파보 앞에는 부정공파의 초상화가 수록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면모를 들여다보면 관모의 형태 등에서 조선 시대의 양식이 반영되어 있어 고려 시대의 실제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동권씨의 시조인 권행의 후손인 권통의는 안동권씨가 여러 파로 갈라져 세력을 형성하던 고려 중·후기에 활약한 인물이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흘러 정확한 생몰년도는 실전되어 전해지지 않지

건강 칼럼 I 권영훈 한의사

약藥 남용과 약화藥禍, 노쇠老衰 부추겨

왜 입이 마르고, 침이 쓰고, 손발이 더웠다 차가웠다 해질까? 쉼 살을 넘긴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찾아오면 “이제 나도 노화가 시작됐다” 싶어 서글퍼지기도 한다.

하나 그렇게 단정할 일만은 아니다. 노화라기보단 한꺼번에 이런 저런 약물을 지나치게 복용한 데서 생긴 약화(藥禍)일 가능성이 크다.

하긴 약에 의존하는 까닭이 노화로 인한 생리적 신드롬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이런 트러블의 근본적인 주범이 노화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을 부른 1차적 원인은 바로 약물남용을 명심해야 한다.

흔히 사람의 건강은 40~50대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필자의 임상 경험에 비춰 봐도 이 무렵부터 각종 퇴행성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여자의 경우 49세가 되면 생리 작용이 끝날 때이므로, 퇴행성 또는 노화 현상도 빨리 오게 된다. 이 즈음 심신이 늘 편치 않고,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길 반복하며, 얼굴 부위엔 미열이 느껴지곤 한다. 밤에도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우울증에다 막연한 허탈·허무감, 공허감 따위의 착잡 미묘한 감정이 얹히며 정서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혹자 말에 ‘제2의 사춘기’라고까지 활만큼 심신과 혼이 방황 아닌 방황을 겪게 되는 그런 시기다.

남자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젊은이 뻘칠 정도의 완력이 생겨나, 순간의 즉발(即拔)적인 힘이 솟구치기도 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역기나 헬스 기구를 이용한 격렬한 운동도 어렵잖게 해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는 본격적인 노화를 앞둔 반사적 증후군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55세가 지나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정

력이전과 같지 않다. 건강 상태가 그 전과는 확연히 달라지며, 신체 전반의 노화와 쇠퇴 현상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찾게 되는 게 약물이다. 흔히 증상별로 약물을 찾다 보니 보통 4~5종의 약을 상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잠이 안 온다고 잠드는 약, 변이 시원찮다고 변비 해소약, 팔다리가 저린다고 해서 신경통약, 몸이 찌뿌드드하다고 해서 혈액 순환제...하는 식이다.

각기 예후가 다르고, 처방이 달라야 할 이런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다 보니 무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체의 균형을 잃거나, 대사가 원활치 못하게 된다.

겉을겹이나 겹는 자세부터 비정상적으로 변해, 보폭이 작아지고 몸놀림이 매우 둔하게 된다. 바깥 바깥 입안이 타들어가고, 입맛이 쓰며, 손발이 늘 차갑거나, 달아오르곤 한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쇠현상을 부추기는 셈이다.

단언하건대, 대중적 약물은 결코 노화 방지책이 아니다. 그보단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기와 혈을 함께 치료하는 기혈구허(氣血俱虛) 요법이 마땅하다. 신체의 기가 소통하고 혈류가 순환함으로써 비로소 대사가 원활하고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노화를 지연시키며, 건강한 만년을 보내기 위한 올바른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피로감疲勞感은 원인 찾아내 피로감 다스려야

현대를 살고 있는 사회인들은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된다. 피로감이란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 신경 감각적인 피로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신체적인 피로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으로 칼로리가 소모되는 한편 육체의 활동이 둔해짐이 대뇌(大腦)의 의식 중추에 자율적으로 전달되어 졸음과 나른함이 자각되는 것

권중달 명예교수 국가민속박물관에 북한민속화 등 기증



자치통감 번역으로 대만문화공로상패를 받았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적표



권중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6월 19일 국가민속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던 북한민속화 등 9건 12점을 기증했다.

북한에서 나온 민속화를 비롯해 육조근정훈장과 훈장증, 자치통감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한 공로로 받은

대만문화공로상패, 대만 유학시절 한시를 써서 받은 대만 방송국 글짓기 상장, 대만 한학 상패와 메달, 자치통감 수기 교정본 등이다.

개인 파일 중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받은 성적표가 눈에 띈다. 권중당 교수 아버지께서는 5살에

타계하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며 아들 성적표를 소중하게 간직하다 결혼하고 10년 후에야 며느리에게 잘 간직하라고 물려주었다고 한다.

며느리 정철재 권중달통감학장학회 이사장은 구구구구한 성적표를 다

리미로 반듯하게 다려서 보관해 왔다 고 한다. 그런 정성이 대를 이어오다 국가민속박물관에서 영구히 보존하기로 했다. 이제는 개인 자료가 아니라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자료가 되었다.

권행완 편집국장

만, 가문의 세대별 흐름과 역사적 연대를 여추산해 보면 그는 대략 12세기 중후반에서 13세기 초반 고려 고종조 무신정권기 전후에 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가능해 볼 수 있다.

화려한 후손들의 역사와 '부정공파' 파 명의 유래



안동권씨 부정공파세보 오봉종택 영역도 소재

특히 그의 후손들이 펼쳐낸 역사적 궤적을 살펴보면 가문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데, 권통의의 8대손인 화산부원군 권견의 딸이 바로 조선 제5대 왕인 문종의 비 현덕왕후이며,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의롭게 순절한 충장공 권자신이 바로 이 가문에서 배출된 인물이다. 권통의가 고려 시대 지방 관아에서 재정 및 녹봉 실무를 담당했던 식록부정이라는 직책을 지냈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를 기리어 '부정공파'라는 파 명을 사용하게 된 것 역시 가문의 깊은 내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I 고증으로 되살아난 12세기 지방 실무자의 복식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고려 시대 지방 행정 체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AI 고증을 거쳐 재구성해 본 권통의의 실제 복식은 중앙 조정의 화려한 정승들과는 뚜렷한 차별점을 보인다. 그가 맡았던 식록부정은 중앙 조정의 고위 품계 관직이 아니라, 안동부의 재정 실무를 총괄하던 상급 향리직에 가까웠다.

따라서 중앙 고위 관료들이 입던 넓고 화려한 소매의 단령 대신, 실무 처리에 용이한 좁은 소매 형태의 협수포를 착용했으며, 중앙 관료들이 쓰던 사모와는 구별되는 고려 중기 지방 향리 계층 고유의 모자와 허리띠를 갖추었을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가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뜻깊은 발걸음

결과적으로 이번 AI 기반의 고증과 세술은 단순한 상상에 의존해 후대 양식으로 왜곡되어 전해지던 조상의 초상을, 12세기 고려 중기 중급 관리이자 지방 실력자였던 실제 역사적 진실에 맞추어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조선 말 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요소가 섞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문종의 역사를 철저한 고증을 통해 바로 세우는 일은, 후손들에게 단순한 시각적 복원을 넘어 조상이 살아 숨쉬던 시대와의 깊은 교감을 선사하며 가문의 정체성을 한층 더 단단하게 다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준다.

(글 권오철)